

09

뿌리 깊은 전통 회화

- 1 전통 회화에 나타난 주제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2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을 알고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박연폭포(황해도 개성)의 실제 모습

▶ 정선(조선/1676~1759) **박연폭포**(비단에 먹/119.7×55.2cm/18세기) 실제 모습과는 달리 거칠고 진한 먹선과 폭포의 강렬한 대비로 계곡의 인상을 대담하게 표현하였다.



“
화가들은
우리의 자연과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까?
”

수묵으로 피어난 우리의 산하

수묵화는 화려한 채색화가 유행한 이후 나타났다. 옛 화가들은 대상의 모습,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수묵을 선택하였다. 붓의 움직임, 먹의 농담, 화면 구성, 여백 효과로 경험과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우리도 주변이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수묵으로 나타내 보자.

채색화가
먼저 등장했다니
흥미로운걸~



▶ 김홍도(조선/1745~1806?)
해동명산도첩-만물초(종이에
먹/30.5×43cm/18세기)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사생한 작품으로 담
백하게 먹선만으로 그린 것이다.

백묘법: 선으로만 그리기



구름법: 윤곽선을 굵고 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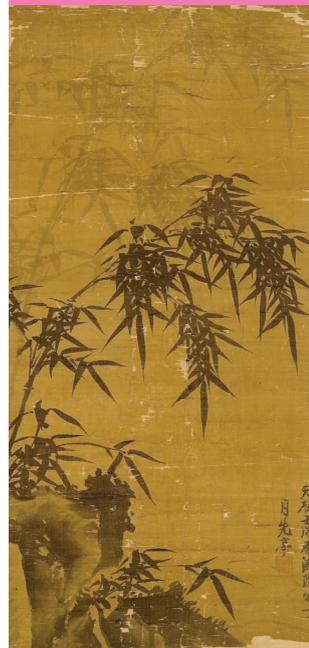


▲ 작자 미상(조선, 화훼초충도(종이에 수묵/44.2×32cm/조선 시
대) 대상의 윤곽을 세밀한 선으로 묘사하고 먹물의 농담을 적절
히 조절하여 칠하였다. 꽃과 풀, 곤충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
하고 선묘와 먹색의 변화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 강현서(학생 작품) 성림사(한지에 먹/35×43cm) 백묘의 효과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기와집
은 가늘고 세밀한 선으로, 산과 나무는 점의 크기나 농담에 변화를 주어 효과적으로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몰골법: 윤곽선 없이 대담하게 그리기



붓으로 점을 찍고
선도 그어 보면서 수묵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비교해 보아요.



◀ 이정(조선/1554~1626), 대나무(비단에 수
묵/119.1×57.3cm/조선 시대) 대나무의 특징을 간
략하게 축약하여 외곽선을 그리지 않고 대담한
필치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농담의 변화로
원근의 공간감을 나타내고 늘어진 잎사귀로 비가
내리는 봄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점과 선으로
산과 바위를 표현한
준법입니다.



쌀알 모양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



실오라기가 흘러내리듯
선을 긋는 표현



'ㄱ' 자처럼 꺾어 내리듯
선을 긋는 표현



도끼로 내려찍듯
붓을 누어 긋는 표현

나만의 준법을 만들어 보자.

- 1 대상을 관찰하기(생김새, 특성 등)
- 2 점과 선으로 표현해 보기(붓과 먹의 효과, 느낌과 생각)
- 3 나만의 준법 완성하기

수묵 담채로 물든 자연과 삶

수묵 담채화는 수묵으로 그리고 얹게 채색하여 맑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자연을 이상향으로 삼아 즐기거나 일상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에서 화가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을 찾아보자.



▲ 박노수(한국/1927~2013) **산**(한지에 수묵 담채/158×223cm/1988년) 길을 가다 한가로이 쉬고 있는 한 사람과 말의 모습을 간략한 먹선과 은은한 푸른색으로 청량하게 표현하였다.



▲ 전기(조선/1825~1854) **매화초옥도**(종이에 수묵 담채/29.4×33.3cm/19세기) 깊은 산속에 은거하는 친구를 찾아가는 화가의 모습을 그렸다. 매화가 만발한 풍경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오용길(한국/1946~) **서울-서울역**(한지에 수묵 담채/93×137cm/2005년) 서울역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생동감 있는 생활을 나타내었다.



▲ 고희동(한국/1886~1965), 이도영(한국/1884~1934) **기명절지**(비단에 수묵 담채/21.2×48.2cm/1915년) 고희동과 이도영이 같이 그림을 그리고 스승인 안중식이 발문을 쓴 선면화이다. 선면화는 부채에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화가들의 서로 다른 화풍이 만나 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 김홍도(조선/1745~1806?) **포의풍류도**(종이에 수묵 담채/27.9×37cm/18세기) 문방구와 서책, 파초, 비파, 검 등으로 당시 문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알고 가기 문인의 삶과 그림-사군자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네 가지 식물을 군자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추위에도 꽃을 피우고 은은히 향기를 풍기며 곧게 자란 모습을 군자의 지조와 품격으로 보았다. 문인들은 이러한 자연을 동경하고 즐기며 시, 서, 화로 표현하였다.



▲ 강세활(조선/1713~1791) **사군자첩**(부분/종이에 먹/37×2,848cm/18세기) 사군자의 모든 소재를 화첩에 모아 표현하였다. 이 화첩은 병풍처럼 펼쳐져서 두 쪽 이상이 연결된 형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표현 재료

한지(두꺼운 장지), 붓, 먹물, 한국화 물감, 접시, 물통, 가위, 풀, 모포

1 선호하는 주제에 따라 모둠을 구성하고 주제 표현에 필요한 소재나 요소를 생각합니다.
(예: 치유의 숲,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 추억의 장소 등)



2 선택한 소재를 관찰하고 수목이나 수목 담체의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한다.(예: 산, 나무, 바위, 폭포, 호수, 자동차, 아파트 등)



3 완성한 그림을 모둠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산수화의 화면 구성과 배치를 계획한다.



4 한지에 모둠원별로 자신이 그린 부분을 오려서 붙이고 작품을 완성한다.

표현 방법

사실적인 나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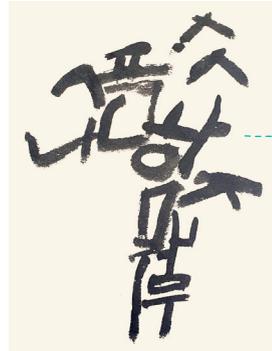
▲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모습과 특징이 잘 나타나게 그린다.

생략, 강조, 변형된 나무 표현



▲ 대상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크기나 형태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켜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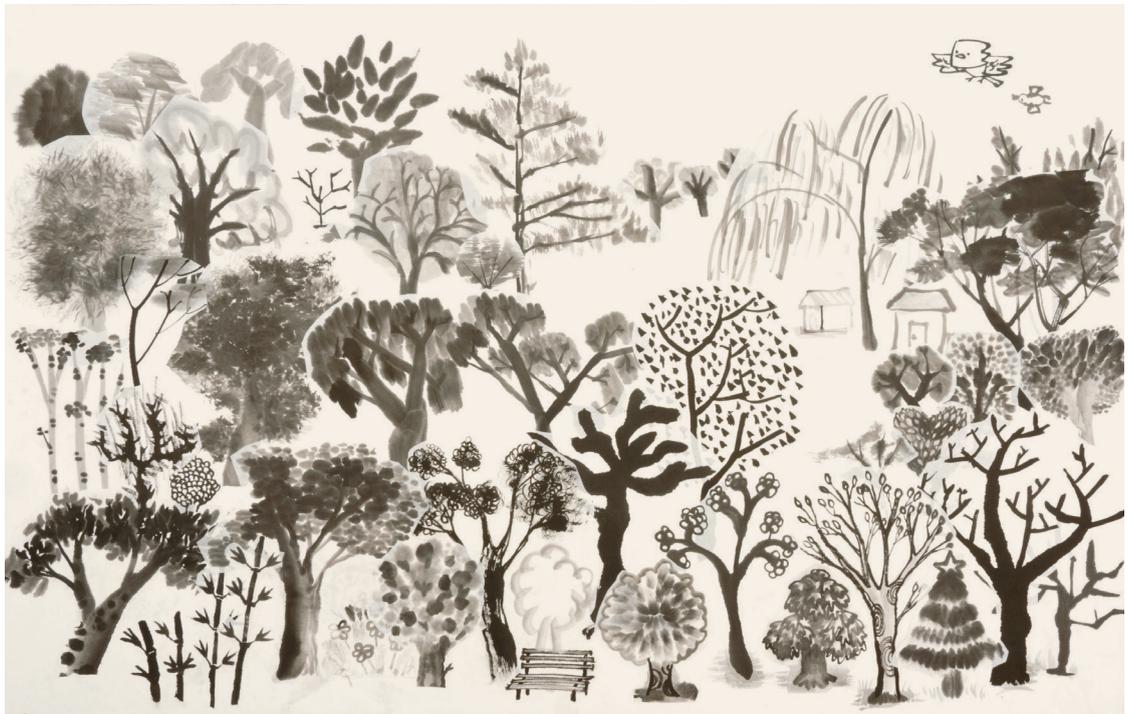
문자 또는 기호화된 나무 표현



◀ 문자나 기호의 모양 또는 의미를 활용하여 대상을 색다르게 그린다.



▶ 정호성 외 3명(학생 작품) 활기찬 숲(한지에 먹, 콜라주/72×116cm)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표현한 나무를 모아 화판에 숲을 구성하였다.



오색찬란한 채색의 전통과 현대

채색화는 비단이나 두꺼운 한지에 아교 액을 칠한 뒤 여러 번 반복하여 색을 칠하는 과정을 거쳐서 화려하고 중후한 느낌을 준다.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채색화의 재료와 표현 기법을 이해해야 한다.



▲ 작가 미상(조선) 왕세자 입학도(종이에 채색/37.5×24cm/19세기) 효명 세자가 9세가 되던 해 성균관 입학 의식을 그린 기록화이다. 세밀한 선묘와 채색으로 당시 행사를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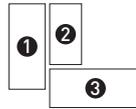


▲ 조중묵(조선/19세기), 박기준(조선/1821~?) 태조 어진(비단에 채색/218×156cm/19세기) 왕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초상화는 뒷면에도 채색하여 은은하게 색이 배어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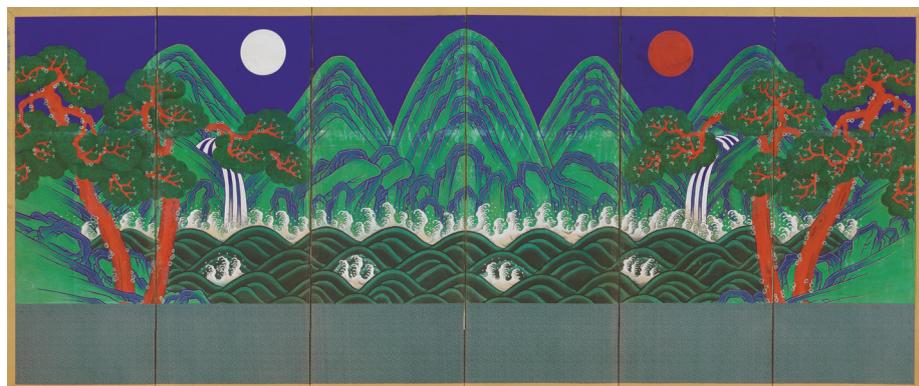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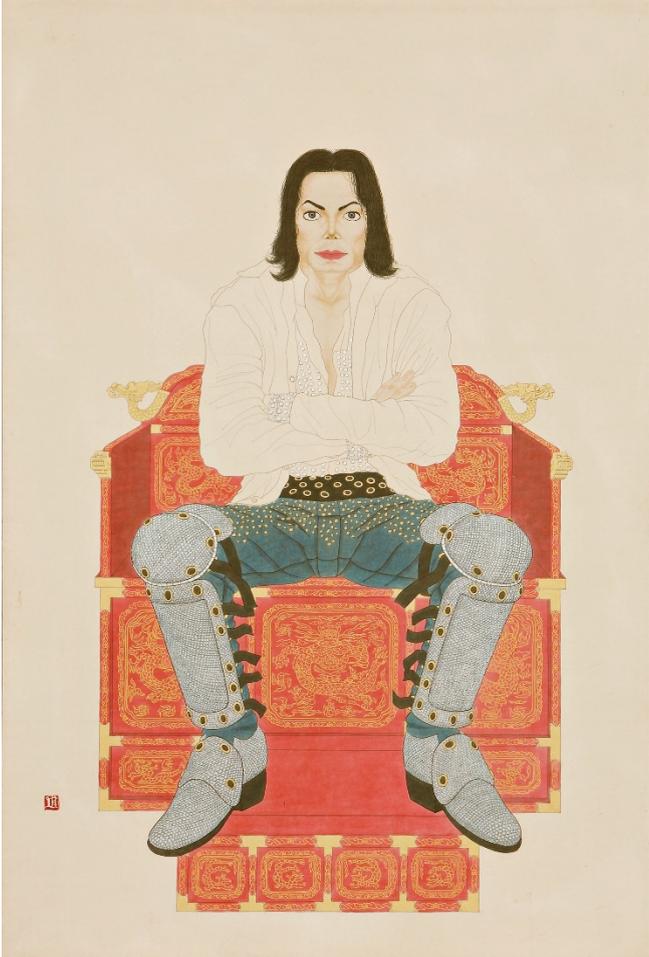
채색화로 표현된 전통 회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채색화의 전통은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시작되어 고려의 불화, 조선의 초상화, 기록화, 화조 영모화 등으로 이어졌다.



① 안중식(한국/1861~1919) 도원문진도(비단에 채색/164.4×70.4cm/1913년) 산수화의 시초인 채색 산수화 양식으로 청록색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향인 도원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② 이암(조선/1499~?) 화조구자도(종이에 채색/45×85.6cm/16세기) 꽃과 새, 강아지와 곤충이 어우러진 구도로 봄날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③ 작가 미상(조선) 일월오봉도(비단에 채색/367.2×153.5cm/19세기~20세기 초)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소나무, 물결로 이루어진 병풍은 궁궐의 어좌 뒤편에 놓여 왕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 손동현(한국/1980~) 왕의 초상(한지에 채색/194×130cm/2008년) 왕을 그렸던 초상화 기법으로 대중문화의 상징이었던 인물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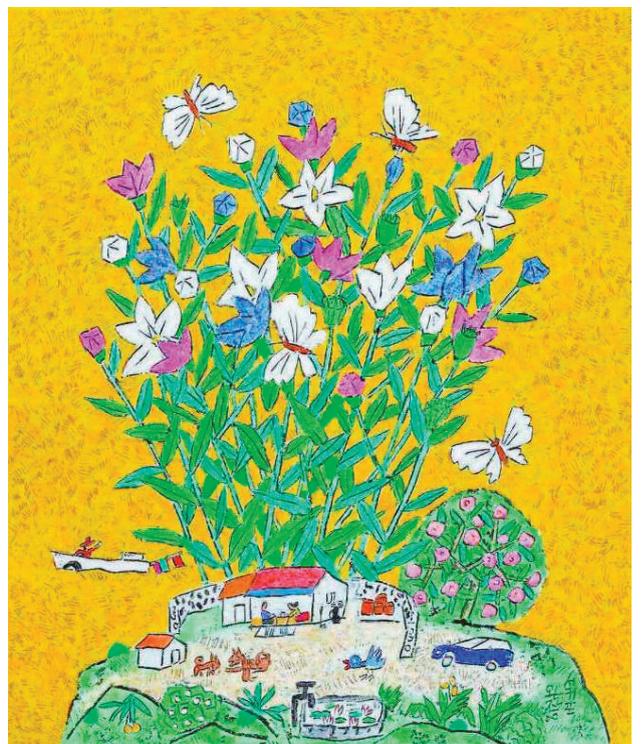


▲ 신선미(한국/1980~) Talk2(한지에 채색/78.5×191cm/2012년)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상상의 캐릭터 게이미 요정이 휴대 전화를 보는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전통 회화의 채색법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의 채색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현대의 채색화는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개성 있는 화풍으로 변모되었다.



- | |
|---|
| ① |
| ② |
| ③ |

① 박생광(한국/1904~1985) 무당 12(종이에 채색/136×139cm/1984년) 전통 색채인 오방색으로 원초적인 무속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② 이말중(한국/1945~) 제주 생활의 중도(한지에 채색/72.5×60cm/2010년)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정감 어린 색채로 표현하였다. ③ 강승우(학생 작품) 찰리는 간식을 좋아해(한지에 채색/40×32cm)



꾸밈없는 우리 민화

민화는 생활 공간을 장식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주로 장수, 다산, 화목, 부귀, 벽사 등의 의미를 담았다. 주제는 민간 설화, 무속 신앙, 각종 고사 등이 많고 모란, 십장생, 화조, 영모, 인물, 산수, 문자도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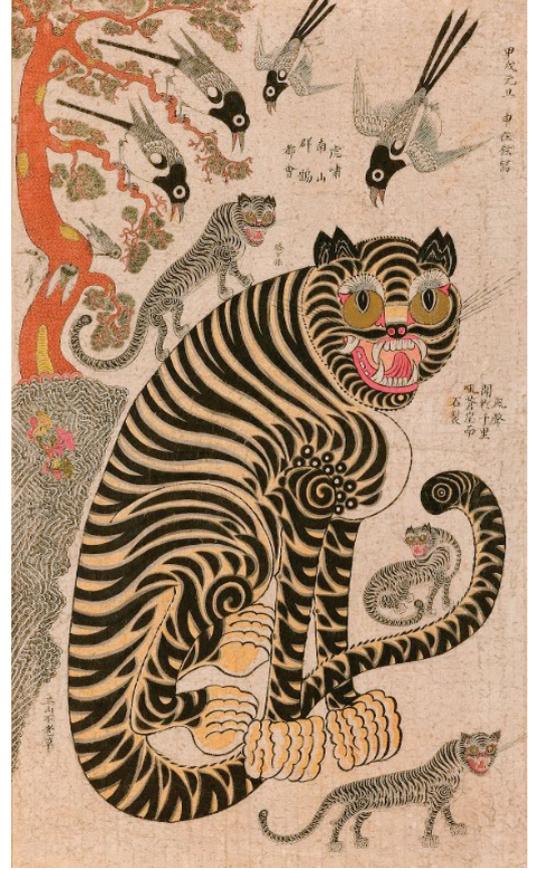
▲ 작가 미상(조선) 화조도(종이에 채색/90.4×37.2cm/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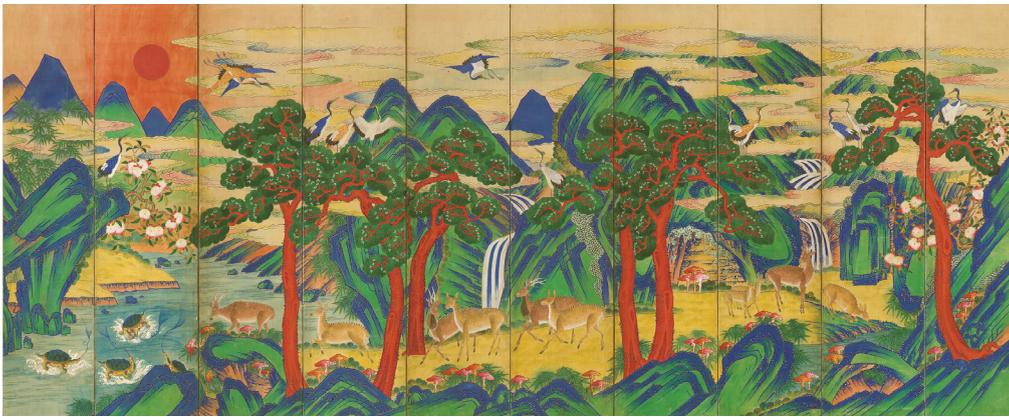
▲ 작가 미상(조선) 책거리(6폭 병풍의 일부/종이에 채색/1폭 67×32.5cm/19세기 후반)



▲ 작가 미상(조선) 아해도(8폭 병풍의 일부/종이에 채색/1폭 91×38cm/19세기 말~20세기 초)



▲ 신재현(한국/미상) 까치와 호랑이(종이에 채색/96.8×56.9cm/1934년)



◀ 작가 미상(조선) 십장생도(10폭 병풍/종이에 채색/151×370.7cm, 214×381.5cm(병풍 포함)) 불로장생을 기원하며 이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상징물은 보통 해, 구름, 산, 물, 바위,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불로초를 꼽지만 그림에는 대나무와 천도(天桃)가 많이 다루어져 열 가지가 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민화는 소박해 보이지만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또 해학적인 것 같아!



알고 가기 전통 회화의 소재와 상징

전통 회화에 등장하는 소재는 옛사람들의 소망과 기원, 이상향 등이 담겨 있다. 꽃, 동물, 과일, 기물은 생김새나 이와 관련된 고사 또는 사상 배경에 따라 장수나 부귀, 출세, 다산, 해로 등을 뜻하였는데 이는 문인, 화원, 무명 화가의 그림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 포도, 참외(다산)



▶ 석류(다산)



▲ 잉어(출세)

◀ 모란(부귀)

표현 재료

부채(종이 또는 비단), 세필, 채색 붓, 평필, 한국화 물감, 먹물, 아교 액, 접시, 물통



1 민화의 소재와 상징적 의미를 탐색하고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밑그림을 그린다.



2 준비된 원형 비단부채에 평필로 아교 액을 칠한다. 앞면과 뒷면을 한쪽씩 차례로 칠하여 말린다. 바탕색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아교 칠이 마른 뒤 색깔을 칠하고 말린다.



3 밑그림 위에 부채를 고정된 뒤 흐린 먹선이나 색선으로 먼저 윤곽선을 그린다.



4 윤곽선에 유의하여 앞면 또는 뒷면에 채색하여 부채 그림을 완성한다.

비단은 반투명한 특성이 있어 앞면과 뒷면에 고루 채색이 가능해.



▲ 채색화 재료와 용구 ①한국화 물감 ②채색화용 붓(세필, 채색 붓, 선 붓, 평필) ③한지 ④버루와 먹 ⑤접시 ⑥먹물 ⑦접시 물감 ⑧아교 액 ⑨문진



▲ 진서희(학생 작품)
봄나비(비단부채에 채색/19×18.5cm)

▲ 이지유(학생 작품)
호랑이와 까치(비단부채에 채색 /지름 21cm)



단원 점검하기

- 전통 회화의 주제와 표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전통 회화의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알고 표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을 응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옛것을 배우고 연구하여 자기의 개성을 살린다면 그림에 무궁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 석도 -